[2010년 3월 27일 법원직 국어 기출문제 해설]
–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신동수 교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 - 문2]

(가) 전통은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境遇)가 있다. 그러나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무턱대고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因襲)이라는 것과의 구별(區別)이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繼承)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 온 것을 객관화(客觀化)하고, 이를 비판(批判)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 비판을 통해서 현재(現在)의 문화 창조(文化創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의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遺物)과도 구별되어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우리는 대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서양식(西洋式)으로 꾸미고 있다. "목은 잘라도 머리털은 못 자른다."고 하던 구한말(舊韓末)의 비분강개(悲憤慷慨)를 잊은 지 오래다. 외양(外樣)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信奉)하는 종교(宗敎), 우리가 따르는 사상(思想), 우리가 즐기는 예술(藝術),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西洋的)인 것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學問) 또한 예외가 아니다. 피와 뼈와 살을 조상(祖上)에게서 물려받았을 뿐, 문화(文化)라고 일컬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서양(西洋)에서 받아들인 것들인 듯싶다. 이러한 현실(現實)을 앞에 놓고서 민족 문화(民族文化)의 전통(傳統)을 찾고 이를 계승(繼承)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편협(偏狹)한 배타주의(排他主義)나 국수주의(國粹主義)로 오인(誤認)되기에 알맞은 이야기가 될 것 같다.

(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은 너무도 유명한 영·정조 시대(英正祖時代) 북학파(北學派)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가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나 '방경각외전(放璚閣外傳)'에 실려 있는 소설이, 몰락하는 양반 사회(兩班社會)에 대한 신랄(辛辣)한 풍자(諷刺)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文章)이 또한 기발(奇拔)하여, 그는 당대(當代)의 허다한 문사(文士)들 중에서도 최고봉(最高峰)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앙(推仰)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文學)은 패관 기서(稗官 奇書)를 따르고 고문(古文)을 본받지 않았다 하여, 하마터면 '열하일기'가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말하자면, 연암은 고문파(古文派)에 대한 반항(反抗)을 통하여 그의 문학을 건설(建設)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민족 문화의 전통을 연암에게서 찾으려고는 할지언정, 고문파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민족문화의 전통에 관한 해명(解明)의 열쇠를 제시(提示)하여 주는 것은 아닐까?

(라) 그러면 민족 문화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멍에를 메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문제(問題)에 대한 올바른 해답(解答)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이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 불변(固定不變)의 신비(神秘)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存在)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創造)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훌륭한 문화적 전통의 소산(所産)으로 생각되던 것이, 후대(後代)에는 버림을 받게 되는 예도 허다하다. 한편,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 후대에 높이 평가(評價)되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암의 문학은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 그러한 것이다. 신라(新羅)의 향가(鄕歌), 고려(高麗)의 가요(歌謠),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사설시조(辭說時調), 백자(白磁), 풍속화(風俗畵)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다.

【문 1】 위 글의 문맥적 흐름을 고려할 때 (가)~(라) 단락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라)-(나)-(가)-(다)　　② (다)-(가)-(나)-(라)
③ (나)-(라)-(다)-(가)　　④ (가)-(라)-(나)-(다)

정답 : ③

해설 : 이 글은 교과서 글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의 일부이다. 단락의 논리적 순서를 추리하는 문제로, 어구의 문맥 의미를 이해하는 다음 문제와 더불어 2008년 법원직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 출제되었다. 먼저 각 단락의 요지를 정리한 뒤 단락 간 관계를 염두에 두고 배치해 본다. 요지를 정리하면 (가) 전통의 본질(전개), (나) 서구화된 우리 문화의 현실(비판적 문제 제기), (다) 연암 문학의 예(예증), (라) 전통의 본질과 계승 방식 고찰의 필요성(논제 제시) 등이다. 서론의 성격을 지닌 (나)와 (라)를 우선 배치하고, 과제 해명이 시작되는 (다)와 (가)를 이어 배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문 2】 위 글에서 ㉠이 지닌 의미를 가장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의미를 수용해야만　　② 비난을 받아야만
③ 현실을 부정해야만　　④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야만

정답 : ②
해설 : ㉠에서 '멍에'는 일반적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비난이나 비판을 받는 것을 뜻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3 - 문4]

丙子修好條規(병자수호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의 金石盟約(금석맹약)을 食(식)하얏다 하야 日本(일본)의 無信(무신)을 罪(죄)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는 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는 實際(실제)에서, 我(아) 祖宗世業(조종 세업)을 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我(아) 文化民族(문화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의 快(쾌)를 貪(탐)할 뿐이오, 我(아)의 久遠(구원)한 社會基礎(사회기초)와 卓犖(㉠)한 民族心理(민족심리)를 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의 少義(소의)함을 責(책)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를 策勵(㉡)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他(타)의 怨尤(원우)를 暇(가)치 못하노라. 現在(현재)를 綢繆(㉢)하기에 急(급)한 吾人(오인)은 宿昔(㉣)의 懲辨(징변)을 暇(가)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의 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의 建設(건설)이 有(유)할 뿐이오, 決(결)코 他(타)의 破壞(파괴)에 在(재)치 안이 하도다. 嚴肅(엄숙)한 良心(양심)의 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의 新運命(신운명)을 開拓(개척)함이오, 決(결)코 舊怨(구원)과 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他(타)를 嫉逐排斥(질축배척)함이 안이로다.

【문 3】 이 글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면, 가장 알맞은 것은?

① 日本(일본)의 無信(무신)　② 征服者(정복자)의 快(쾌)
③ 吾人(오인)의 所任(소임)　④ 良心(양심)의 命令(명령)

정답 : ③
해설 : '기미 독립 선언서'의 일부이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우리는 일본의 신의 없음이나 의리 없음을 단죄하거나 질책하려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나라를 건설하고 새 운명을 개척하는 일이다.' 따라서 전제와 주지의 구성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는 '우리의 입장과 소임'이다. ③이 정답이 된다.

【문 4】 ㉠ ~ ㉣에 들어갈 한자의 독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 탁월　② ㉡ 책려　③ ㉢ 주무　④ ㉣ 숙석

정답 : ①
해설 : ㉠은 '탁월(卓越)'이 아니고 '탁락(卓犖)'으로 독음하는 것이 맞다. '卓犖(높을 탁, 뛰어날 락)'의 뜻은 '탁월'과 같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5 - 문7]

(가)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응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보리타작'

(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후렴)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가 이 아닌가.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 찰랑 돋아 놓고 쥔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돋는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

-'논매기 노래'

(다)
홍진(紅塵)에 뭇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ᄒᆞᆫ고.
녯 사ᄅᆞᆷ 풍류(風流)를 미출가 ᄆᆞᆺ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ᄒᆞᆫ 이 하건마ᄂᆞᆫ
산림(山林)에 뭇쳐 이셔 지락(至樂)을 ᄆᆞᄅᆞᆯ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앏픠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예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ᄂᆞᆫ 석양리(夕陽裏)예 퓌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ᄂᆞᆫ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ᄆᆞᆯ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ᄉᆞᄅᆞᆸ다.
수풀에 우ᄂᆞᆫ 새ᄂᆞᆫ 춘기(春氣)를 ᄆᆞᆺ내 계워 소릐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ᄋᆡ 다ᄅᆞᆯ소냐.
시비(柴扉)예 거러 보고, 정자(亭子)애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ᄒᆞ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ᄒᆞᆫ데,
(　　㉠　　)을/ᄅᆞᆯ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정극인, '상춘곡'

【문 5】 (가)~(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다)와 달리 (나)의 계절적 배경은 알 수 없다.
② (나)와 달리 (가)와 (다)에는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담겨 있다.
③ (다)와 달리 (가)와 (나)는 평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각을 표현하였다.
④ (다)와 달리 (가)와 (나)에는 노동하는 평민들의 낙천적이고 굳센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정답 : ④
해설 : (가)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모습과 노동의 보람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자신의 삶을 반성한 글이다. 현장성이 강한 작품이다. (나)는 논의 김을 매는 일, 즉 논매기를 할 때 부른 노동요의 하나로, 천직에 대한 자긍심과 일에 대한 낙천적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다)는 최초의 가사로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풍류 생활을 즐기는 은일지사(隱逸之士)로서 자긍과 춘경(春景)에 몰입된 즐거움을 드러낸 작품이다.
① (나)도 논의 김을 매는 때와 관련된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② (가)에만 관직에 몸담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 있다.
③ (가)는 평민이 아닌 실학자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문 6】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4음보를 기본으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이 구사되었다.
② 논에 모를 내면서 노동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부른 민요이다.
③ ㉠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부분으로 흥을 돋우어 피로를 잊게 한다.
④ ㉡은 농부들의 자부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부분으로 낙천성을 잘 드러낸다.

정답 : ②
해설 : 이 노래는 모내기를 할 때 부른 노래가 아니고 김매기를 할 때 부른 노동요이다. 나머지는 모두 적절한 서술이다.

【문 7】 (다)글의 ㉠에 들어갈 말로, 주제를 함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단표누항(簞瓢陋巷)　② 한중진미(閑中眞味)
③ 청풍명월(淸風明月)　④ 주객일체(主客一體)

정답 : ②
해설 : 문맥을 보면 필자는 봄을 맞아 일상의 한가로움 속에서 누리는 참다운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앞에 '산일이 적적흔데(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라고 했으므로 '한중진미(閑中珍味)'가 가장 잘 어울린다.
① 단표누항(簞瓢陋巷) : 가난한 시골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
③ 청풍명월(淸風明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
④ 주객일체(主客一體) :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됨.

【문 8】 다음 ㉠~㉣ 중 한자의 표기가 틀린 것은?

나는 오늘날의 인류의 문화가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報復)으로 작고 큰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人心)의 불안(不安)과 도덕(道德)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 가지고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① ㉠시기 : 猜忌　② ㉡알력 : 軋轢
③ ㉢침략 : 侵略　④ ㉣타락 : 墜落

정답 : ④
해설 : '타락(墮落 : 떨어질 타, 떨어질 락)'과 '추락(墜落 : 떨어질 타, 떨어질 락)'을 구별하여 알아 둔다.

【문 9】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중 표기법에 맞는 어휘의 수는?

기부스, 슈퍼마켓, 코메디, 뷔페, 초콜렛, 악세사리, 리더십, 로봇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 ③
해설 : 기부스⇒깁스(Gips), 코메디⇒코미디(comedy), 초콜렛⇒초콜릿(chocolate), 악세사리⇒액세서리(accessory).

【문10】 다음 문장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① 날씨가 흐리고 한두 차례 비가 올 전망이다.
② 어리다고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친다.
③ 영수는 나이는 어릴 망정 철은 다 들었다.
④ 그녀가 죽은지 3년이나 되었다.

정답 : ①
해설 : ① '한두'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인 수관형사이므로 뒷말과 띄어 쓴다.
② 크게 봉변을 당하거나 무안을 당하다는 말로 변형되어 쓰이는 '큰코다치다'는 관용적으로 굳어져 쓰이므로 붙여 쓴다.
③ '-ㄹ망정'은 어미이므로 붙여 쓰고, '-기에 망정이지'는 '망정'이 의존 명사로 띄어 쓴다.
④ '지'가 경과한 시간을 의미하면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1 - 문13]

(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나)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귑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 오라고 따라 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 '가는 길'

【문11】 (가)와 (나)에 공통으로 사용된 '이별' 모티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의 '이별'은 모두 강요된 것으로 시적자아를 무력하게 만든다.
② (가)와 (나) 모두 이별로 인한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되었다.
③ (가)의 이별은 (나)와 달리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방법적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가)의 이별은 (나)와 달리 과거의 존재, '나'와 근원적으로 합일될 수 없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정답 : ③
해설 : (가) '님의 침묵'은 불교적인 세계관(윤회설, 공사상)을 바탕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임에 대한 불굴의 사랑과 확신을 형상화한 시이다. (나) '가는 길'은 망설이는 화자의 내면적 갈등과 떠나기를 재촉하는 외면적 상황이 나타난 작품이다. (가)는 이별이 새로운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므로 ③이 적절한 해석이다.
①과 ② (가)는 해석이 적절치 않으며, ④ 또한 깨달음을 통해 '나'와 근원적 '합일'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른 해석이 아니다.

【문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행간 걸침으로 시적자아의 시간적 여유를 표현
② ㉡ :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객관적 상관물
③ ㉢ : 주체인 시적자아가 객체인 강물에게 끌려가는 시간
④ ㉣ : '흐릅디다'를 늘여 쓴 평안북도 방언

정답 : ②
해설 : ㉡'가마귀'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며, 비관적인 생의 인식을 보여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① '행간 걸침'이란 시인이 의도를 가지고 시구를 다음 행에 걸쳐 놓는 것을 말한다. ㉠'하니'도 '행간 걸침'에 해당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 화자의 망설임을 표현한 것이다.
③ 화자에게 '따라오라'고 하던 '강물'은 곧바로 화자의 내면이 되어 '따라가자'고 하고 있으므로, 주객의 융합을 이루고 있다.
④ '흐릅디다려'는 시인이 운율감을 고려하여 사용한 조어로, '흐릅디다(전달 종결형)'에 '그려(강조 보조사)'가 결합된 형태이다.

【문13】 다음 중 (가)를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보 기>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은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가치는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얼마만큼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① 이 시는 내용상 기, 승, 전, 결의 구조로 되어 있어.
②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현실로 보아 '님'은 '조국', '민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③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한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이기 때문에 시적자아의 소망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져.
④ 재회를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아. 인내심 없는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

정답 : ④
해설 : <보기>는 작품 이해의 관점 중에서, 수용자인 독자에게 주는 효과나 독자가 받는 감동에 초점을 두는 '효용론적 관점'에 관한 설명이다.
①, ③ 작품 자체의 내적 구조, 어조와 시어 사용의 특징 등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절대론적 관점'이다.
② 당대 사회 현실과 결부하여 이해하는 '반영론적 관점'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4 - 문15]

(가)

生死路隱　　生死 길흔

此矣有阿米次肹伊遣　　이에 이샤매 머믓거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가ᄂᆞ다 말ㅅ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몯다 니르고 가ᄂᆞ닛고.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ᄀᆞᅀᆞᆯ ㉠이른 ᄇᆞᄅᆞ매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에 뎌에 ᄠᅳ러딜 닙ᄀᆞᆮ,
一等隱枝良出古　　㉡ᄒᆞᄃᆞᆫ 가지라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논 곧 모ᄃᆞ론뎌.
阿也彌陀刹良逢乎吾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修良待是古如　　道 닷가 기드리고다.　<제망매가>

(나)
내 님믈 그리ᄉᆞ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ᄒᆞ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ᄃᆞᆯ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ᄅᆞ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ᄒᆞᆫᄃᆡ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없소이다
ᄆᆞᆯ힛마리신뎌
ᄉᆞᆯ읏븐뎌 아으
니미 나ᄅᆞᆯ ᄒᆞ마 니ᄌᆞ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정과정>
* ᄆᆞᆯ힛마리신뎌 : 뭇사람의 헐뜯는 말이로다
* ᄉᆞᆯ읏븐뎌 : 슬프구나

【문1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향가의 정제된 형태인 10구체의 형식으로 된 노래다.
② 시적자아는 시적 대상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③ 시적자아는 시적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다.
④ 인물의 처지를 자연물에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정답 : ③
해설 : (가)는 요절한 누이에 대한 '할반지통(割半之痛)'과 종교적 극복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고, (나)는 유배지에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향가계 여요 작품이다.
③ (가)는 윤회사상에 의거하여 재회에 대한 바람과 확신이 있지만, (나)는 임이 화자의 결백을 믿어 주고 다시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재회에 대한 확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① (가)는 10구체 향가 작품이고, (나)는 10구체 향가의 잔영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② (가)는 죽은 누이를, (나)는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다.
④ (가)는 죽은 누이를 떨어지는 잎으로, (나)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접동새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문15】 (가)와 (나)의 ㉠ ~ ㉣에 대한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 : 누이의 요절(夭折)　　② ㉡ : 동기지간(同氣之間)
③ ㉢ : 시적자아의 객관적 상관물　　④ ㉣ : 임금을 상징하는 초월적 존재

정답 : ④
해설 : ㉣'잔월효성'의 사전적 의미는 새벽달과 샛별이고, 문맥적 의미는 자신의 결백을 알아 줄 천지신명(天地神明)을 가리킨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6 - 문18]

(가)
딩아 돌하 当今(당금)에　계샹이다. / 딩아 돌하 当今(당금)에 계샹이다.
先王聖代(션왕셩ᄃᆡ)예 노니ᄋᆞ와지이다.

(나)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 / 구은 밤 닷 되를 심고이다.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 그 바미 우미 도다 삭나거시아
有德(유덕)ᄒᆞ신 님믈 여히ᄋᆞ와지이다.

(다)
玉(옥)으로 蓮(련)ㅅ고즐 사교이다.
玉(옥)으로 蓮(련)ㅅ고즐 사교이다.
바회 우희 接柱(졉듀)ᄒᆞ요이다.
그 고지 三同(삼동) 이 퓌거시아
그 고지 三同(삼동) 이 퓌거시아
有德(유덕)ᄒᆞ신 님 여히ᄋᆞ와지이다.

(라)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긴힛ᄃᆞᆫ 그츠리잇가.
즈믄 히ᄅᆞᆯ 외오곰 녀신ᄃᆞᆯ
즈믄 히ᄅᆞᆯ 외오곰 녀신ᄃᆞᆯ
信(신)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문16】 이 노래는 민요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노래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연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 ①
해설 : 이 노래는 고려 속요 '정석가'이다. (가)는 서사 대목으로, 전체 내용과 긴밀한 연관 없이 의식요의 성격을 지닌 부분이다. 이는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17】 이 노래와 관련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문학의 형식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 역설적 상황의 제시를 통하여 시적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③ 화자의 내면 심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조선시대 선비들의 유교적 지조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로 볼 수 있다.

정답 : ②
해설 : 이 작품은 불가능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임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은 민요의 형식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③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나)부터 보면 직설적이 아닌 비유적 표현을 하고 있다.
④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고려 가요에 해당된다.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 임금에게 바치는 축수의 송축가로 볼 수 있고, 임을 연인으로 본다면 유덕하신 연인과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연모가가 된다. 아무튼 '조선 선비들의 유교적 지조'를 노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문18】 위 글에서 시적 화자의 믿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셰몰애 ② 구은 밤 ③ 바회 ④ 긴

정답 : ④
해설 : (라)에 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이 잘 나타나 있다. 어떤 외부적인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임과 인연의 끈('긴')은 끊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19 - 문20]

흰 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ᄂᆞᆫ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으로 사마 두고, 나명셩 들명셩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떠나거니 広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블그락 여트락 지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추 쓰리는다. 藍輿(남여)를 빗야 투고 솔 아릐 구분 길로 오며 가며 ᄒᆞ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ᄒᆞ는괴야. 나모 새 ᄌᆞᄌᆞ지여 樹陰(수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 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펴니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긋칠 줄 모르는가. 즌 서리 ᄲᅡ진 후의 산빗치 錦繡(금슈)로다. 黃雲(황운)은 또 엇지 萬頃(만경)에 편거긔요,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돌를 ᄯᅮ라 브니는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ᄆᆡ몰커늘, 造物(조물)이 헌ᄉᆞᄒᆞ야 氷雪(빙설)로 ᄭᅮ며 내니 瓊宮瑤台(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러셰라. 乾坤(건곤)도 가옴열샤 간 대마다 경이로다. / 人間(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ᄒᆞ고 져것도 드르려코 ᄇᆞ름도 혀려 ᄒᆞ고 ᄃᆞᆯ도 마즈려코 ᄇᆞᆷ으란 언제 쥽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ᄂᆞᆯ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ᄒᆞ랴. 이 뫼히 안즈 보고 져 뫼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ᄒᆞᆫ ᄆᆞᅀᆞᆷ의 ᄇᆞ릴 일이 아조 업다. 쉴사이 업거든 길히나 젼ᄒᆞ리야. ㉠다만 ᄒᆞᆫ 靑藜杖(청려장)이 다 므듸어 가노ᄆᆡ라. 술이 닉엇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ᄂᆡ며 ᄐᆞ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져츠락 을프락 ᄑᆞ람ᄒᆞ락 노혜로 놀거니 天地(천지)도 넙고넙고 日月(일월)도 ᄒᆞᆫ가ᄒᆞ다. 羲皇(희황)을 모ᄅᆞ러니 이젹이야 긔로고야.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긔로고야.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ᄂᆞ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上(악양루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情懷(호탕정회)야 이에서 더ᄒᆞᆯ소냐. 이 몸이 이렁 굼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문19】 이 작품에서 서술되고 있는 내용 중 작가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것은?

① 斜陽(사양) ② 藍輿(남여) ③ 黃雲(황운) ④ 醉興(취흥)

정답 : ②
해설 : 이 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의 풍류 생활을 읊은 송순의 은일가사(隱逸歌辭) '면앙정가'의 일부이다. ②'남여(藍輿)'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가리키는데, 비교적 높은 벼슬아치가 탔다.
① '사양(斜陽)'은 석양(夕陽)과 같은 말이고, ④ '취흥(醉興)'은 술에 취하여 일어나는 흥취를 가리킨다.
③ '황운(黃雲)'은 여기서는 누렇게 곡식이 익은 들판을 비유한 말이다.

【문20】 위 글의 ㉠다만 ᄒᆞᆫ 靑藜杖(청려장)이 다 므듸어 가노ᄆᆡ라.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작가는 자연경치를 완상하기 위해 많이 돌아 다녔다.
② 작가는 세속적 욕망과 탈속적 초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③ 작가는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④ 작가는 자기의 의지로 세속적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정답 : ①
해설 : '청려장'은 명아줏대로 만든 지팡이를 가리킨다. 그것이 무디어간다는 것은 닳아간다는 뜻이니 자연 풍광을 감상하러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말이 된다.

【문21】 다음 <보기>는 서론의 일부이다.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탁월함은 어떻게 습득되는가, 가르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탁월함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의 탁월함은 비이성적인 것이어서 가르칠 수 없고,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는 좋은 성품을 얻는 것을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비유한다. 그에 따르면, 리라(lyra)를 켬으로써 리라를 켜는 법을 배우며 말을 탐으로써 말을 타는 법을 배운다. 어떤 기술을 얻고자 할 때 처음에는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하여 그 행동이 점점 더 하기 쉽게 되고 마침내 제 2 의 ㉡습관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진실되고 관대하며 예의를 차리게 되는지 일일이 배워야 한다. ㉣예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꼭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그래서 훈련과 반복을 통하여 그런 행위들을 연마하다 보면 그것들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①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여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은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천성'으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그러므로'로 고쳐야 한다.

④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 한다.

정답 : ③
해설 : ㉢은 그대로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 앞부분에서 비유적 예시를 든 것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같은 양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가 그대로 어울린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2 - 문23]

명서 처 음, 그 애에게서 물건이 온 게로구먼.
명서 뭘까?
명서 처 세상에 귀신은 못 속이는 게지! 오늘 아침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더니, 이것이 올려구 그랬던가 봐. 당신은 우환이니 뭐니 해도…….
명서 (소포의 발송인의 이름을 보고) 하아 하! 이건 네 오래비가 아니라 삼조(三祚)가…….
명서 처 아니, 삼조가 뭣을 보냈을까? 입때 한 마디 소식두 없던 애가…….
(소포를 끌러서 궤짝을 떼어 보고)
금녀 (깜짝 놀라) 어마나!
명서 처 (자기의 눈을 의심하듯이) 대체 이게…… 이게? 에그머니, 맙소사! 이게 웬 일이냐?
명서 (되려 멍청해지며, 궤짝에 쓰인 글자를 읽으며) 최명수의 백골.
금녀 오빠의?
명서 처 그럼, 신문에 난 게 역시! 아아, 이 일이 웬 일이냐? 명수야! 네가 왜 이 모양으로 돌아왔느냐? (백골 상자를 꽉 안는다.)
금녀 오빠!
명서 나는 여태 개 돼지같이 살아 오문서, 한 마디 불평두 입밖에 내지 않구 꾸벅꾸벅 일만 해 준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을 이 지경을 맨들어 보내느냐? 응, 이 육실헐 눔들! (일어서려고 애쓴다.)
금녀 (눈물을 씻으며) 아버지! (하고 붙든다.)
명서 놓아라, 명수는 어디루 갔니? 다 기울어진 이 집을 뉘게 남겨 두구 이눔은 어딜?
금녀 아버지! 아버지!
명서 (궤짝을 들고 비틀거리며) 이놈들아, 왜 뼉다구만 내게 갖다 맽기느냐? 내 자식을 죽인 눔이 이걸 마저 처치해라! (세진하여 쓰러진다. 궤짝에서 백골이 쏟아진다. 밭은 기침, 한동안)
명서 처 (흩어진 백골을 주우며) 명수야,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백골이나마 우리를 찾아 왔다. ㉠<u>인제는 나는 너를 기다려서 애태울 것두 없구,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을 울어 새우지 않아두 좋다!</u> 명수야, 이제 너는 내 품 안에 돌아왔다.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져가래라!
금녀 아버지, 서러 마세유. 서러워 마시구 이대루 꾹 참구 살아 가세유. 네, 아버지! 결코 오빠는 우릴 저바리진 않을 거예유. 죽은 혼이라도 살아 있어, 우릴 꼭 돌봐 줄 거예유. 그 때까지 우린 꾹 참구 살아 가세요. 예, 아버지!
명서 …아아, 보기 싫다! 도루 가지구 가래라!
(금녀의 어머니는 백골을 안치하여 놓고, 열심히 무어라고 중얼거리며 합장한다. 바람소리 적막을 찢는다.)
— 막(幕) —
<토막>

【문22】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이 글은 대사와 행동이 중심이 되는 희곡에 해당한다.
② 실제로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부재적(不在的) 주인공(명수)의 백골을 통해 주제를 상징하고 있다.
③ 등장인물 중 금녀는 미래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④ 결말부에 제시된 바람소리는 갈등의 해소를 암시하는 효과음이다.

정답 : ④
해설 : 이 작품은 사실주의 상황 비극인 유치진의 '토막'이다. '명수'가 백골로 돌아오자 명서네 가족이 절규하고 있는 대단원 대목이다.
④ '바람 소리'는 갈등 해소를 암시하는 효과음이 아니라, 비극적 정황을 더욱 강조하고 환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문23】 명서 처의 대사 ㉠과 표현이나 발상이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②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어도 / 화사한 그의 꽃 / 산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③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케 한다.
④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정답 : ①
해설 : ㉠은 자식을 잃은 극한 슬픔 앞에서 나타나는 반어적 절규라고 할 수 있다. ①도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정한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② 대유법(산에 언덕에-우리 국토의 산하), ③ 은유법, ④역설법 등이 사용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문24 - 문25]

엇그제 저멋더니 ᄒᆞ마 어이 다 늘거니.
少年行樂(소년 행락) 생각ᄒᆞ니 일러도 속절업다.
늘거야 서른 말ᄉᆞᆷ ᄒᆞ자니 목이 멘다.
父生母育(부생 모육) 辛苦(신고)ᄒᆞ야 이내 몸 길러 낼 제
公侯配匹(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君子好逑(군자 호구) 願(원)ᄒᆞ더니,
三生(삼생)의 怨業(원업)이오 月下(월하)의 緣分(연분)ᄋᆞ로,
長安遊俠(장안 유협) 輕薄子(경박자)를 ᄆᆞᆷ긋치 만나 잇서,
當時(당시)의 用心(용심)ᄒᆞ기 살어름 디듸는 ᄃᆞᆺ,
三五二八(삼오 이팔) 겨오 지나 天然麗質(천연 여질) 절로 이니,
이 얼골 이 態度(태도)로 百年期約(백년 기약) ᄒᆞ얏더니,
年光(연광) 훌훌ᄒᆞ고 造物(조물)이 多猜(다시)ᄒᆞ야,
㉡봄바람 가을 믈이 뵈오리 북 지나듯
雪鬢花顔(설빈 화안) 어듸 두고 面目可憎(면목 가증)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괼소냐.
스스로 慚愧(참괴)ᄒᆞ니 누구를 怨望(원망)ᄒᆞ리.
三三五五(삼삼 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 금편)으로 어듸어듸 머무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긋쳐신들 ᄉᆡᆼ각이야 업슬소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르려믄,
열두 째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ᄒᆞ다.
玉窓(옥창)에 심근 梅花(매화) 몃 번이나 픠여 진고.
겨울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가을 ᄃᆞᆯ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에 울 제,
긴 한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헴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규원가>

【문24】 이 글의 화자(話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는 여인의 외로움과 한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과 현재의 추한 모습을 대비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③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에 대한 심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원망스런 남편을 잊고 체념하면서 덧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 이 글은 허난설헌의 내방가사인 '규원가(閨怨歌)' 일부이다. 가부장제 봉건제도하에서의 부녀자의 한(恨)과 외로움을 절절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인연을 긋쳐신들 청각이야 업슬소냐.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믄'을 보면 남편을 잊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25】 다음 ㉠ ~ ㉤에 대한 풀이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 : 군자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미녀를 의미한다.
② ㉡ : 비유적 표현으로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의미한다.
③ ㉢ : 호사스러운 행장을 의미한다.
④ ㉣ :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정답 : ①
해설 : ㉠'군자호구(君子好逑)'란 군자의 좋은 짝을 이르는 말이다. '逑(구)'는 '짝・배우자 구'이다.

=======

[총평]

금번 2010년도 법원직 국어 시험의 유형은 전년도 시험과 유사하지만 난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법원직 특유의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심도 있는 지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너덧 문제가 까다로웠으며 시간적 부담도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원별로 보자. 우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문학 관련 문제가 긴 지문 형태로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문학 5문제, 고전문학 11문제가 출제되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단일지문 3개와 두세 작품이 세팅된 복합지문이 4개 출제되고 다양한 측면의 이해력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문학 문제 중에는 특히 작품들을 비교 감상하는 문제가 좀 더 까다로운 편이었다.

문학의 출제 비중이 높음에 따라 띄어쓰기 문제와 외래어 표기 문제 등 두 문제가 출제된 생활 국어 영역의 출제율은 낮았으며, 성실한 학습자였다면 해결하기도 무난한 편이었다. 아울러 한자어 표기, 독음, 한자 성어 문제도 비교적 익숙한 문제였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작문에서 고쳐쓰기의 실제 문제가 좀 까다로웠으나, 실용문 지문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와 익숙한 지문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결이 용이한 편이었다.

이번 법원직 시험에서도 역시 다른 직렬과 달리 지문 문제, 특히 고전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다. 법원직의 경향에 맞는 수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문 문제가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문제에 활용된 14개의 모든 지문이 100% 기본서와 지문특강에서 다룬 것들이고, 또한 실용 어휘나 한자 문제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 형태로 마무리 학습 과정에서 다 다룬 것들이어서 수업 시간의 집중과 철저한 복습이 이루어졌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시험을 치른 모든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